



[뉴스] 파생상품 광동 속출 속 국민은행 고객은 수익 챙겼다 02



Economy

코스피	1960.25 (+20.35)	코스닥	607.01 (+12.36)
금리 (미국 3년)	1.10 (+0.01)	환율 (원/달러)	1208.30 (-2.70) (20일)

상장사 9년새 영업이익 40% 늘어도, 시총은 15% 증가 그쳐

저평가 높에 빠진 전통제조업... 플랫폼경제 전환 시급



(1)시총 상위사 실적 분석

‘시총 1위’ 삼성전자 1분기 순익 지난해 동기대비 63%나 줄어 SK 하이닉스도 전년비 1/3수준

현대차·SK·LG·롯데지주 등은 영업이익·순익 20% 이상 증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100위 기업 가운데 38%가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올 1분기에 20% 이상 감소한 상장사가 35%에 달했다. 기업이익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줄어 들어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정부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프로젝트에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수요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은 양질의 데이터 접근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에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메트로신문이 데이터 공급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할 “데이터 저널리즘”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편집자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실적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된 상태다. 기업들은 투자보다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신문이 20일 나이스평가정보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 시가총액 100위 기업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이 35곳에 달했다. 순이익이 20% 이상 줄어든 상장사도 38곳이었다.

◆영업익·순익 20% 이상 감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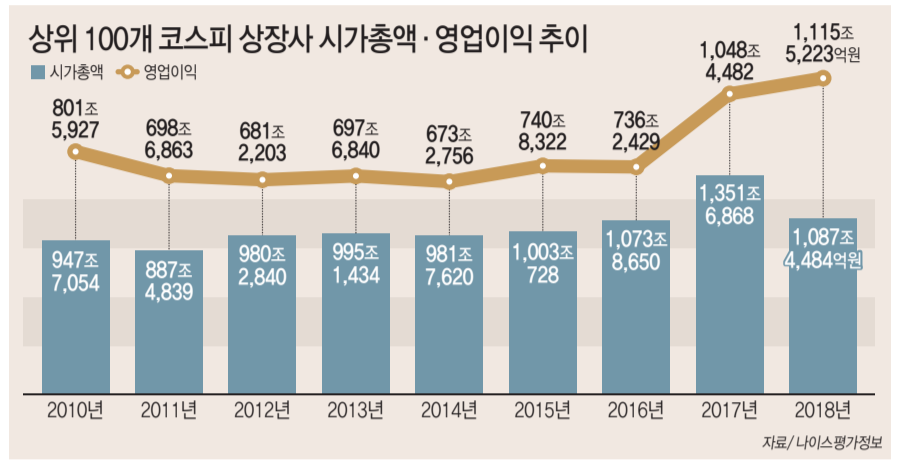
시총 100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지난해 1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주요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LG전자 등이었다.

실제로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1분기 순익이 3조88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순익(8조4524억원) 대비 63.4%나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3조8969억원으로 작년 1분기(11조2008억원) 대비 65.2%나 급감했다.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의 경우 올 1분기 순익 944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3조194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영업이익도 1조2169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650억원)의 27%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 확산으로 하반기 실적도 먹구름이 예상된다.

◆영업익·순익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기업

반면 올 1분기 실적에서 반전 드라마를 쓴 기업도 있다.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20% 이상 증가한 상장사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 LG, 롯데지주, 현대글로벌비스, 호텔신라, GS리테일 등이었다.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2352억원으로 작년 1분기(1853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SK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 동기(8031억원) 대비 39.3% 급증했다.

호텔신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720억원으로 전년 동기(455억원) 대비 58.2% 급증했다. 순익도 올 1분기에 186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34억원) 대비 38.8% 증가했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이 끝난 뒤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 첫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탄소섬유 활용 제품 등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북 효성·하림 공장 방문

‘탄소섬유’ 국가 전략산업 집중 육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전북 내 ▲효성 첨단소재 전주탄소섬유공장과 ▲하림 익산 본사 및 식품공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행보는 문 대통령이 ‘일본발 경제보복 전선의 활로’이자 경제강국을 향한 ‘우리경제 생태계 변화’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기여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효성-전라북도-전주시 투자협약체결을 격려했다. 효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 등 국내의 탄소섬유 수요증가에 따라, 탄소섬유 생산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2.

4만톤(현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은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라인(현 1개)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전북-전주는 증설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섬유는 자동차 내외장재·건축보강재·우주항공 등 첨단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이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신소재다. 더욱이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가 적고 강도가 높아 ‘미래산업의 쌀’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효성-전북-전주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싼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며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 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탄소섬유 등 100여개 핵심품목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

“외환시장 각별한 경계감 쏠림 발생 땀 선제 조치”

김용범 기재부 차관
글로벌 금융시장 예의주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수급 쏠림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의 재부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며 “시장 불안 우려가 생기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제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침체를 예상하는 신호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며 “(이번 역전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바로 해소됐다”고 답했다. 이어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은 적도 많았다”며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겠지만, 침체라고 할수록 자기실현적 위기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 시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의 고용률 개선이 단기 일자리 확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상 고령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며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